

- 읽을 말씀 22:16-17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성 밖” 이 불뿔이며,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2천년 동안 불가능했던 요한계시록 해석을 담임 목사님께 왜 부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1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특히 로마서 9장과 요한계시록 해석은 제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오래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둘 다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로마서 9장에 이어 저로선 불가능했던 요한계시록 해석을 부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저의 부르심, 즉 고1 때 꾸 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소명 문제로 긴 기간 고민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열일곱 살 때 자신의 소명을 보여주는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창 37:1-11). 요셉의 소명과 저의 소명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육적인 기근에 대비하도록 세우신 반면에 저는 영적인 기근에 대응하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암 8:11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구절은 이 시대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오늘날 WCC와 NCCK를 통해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옹호,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도 동성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도 부인하고,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이단 교수들이 많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구원론의 경우, ‘오직 믿음!’ 으로 대변되는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이 교계에 널리 퍼져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위험천만한 거짓 교리가 두루 퍼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성령세례와 방언과 성령의 은사들을 터부시합니다. 아울러 특별계시와 달리 다른 계시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계시가 끝났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도에 대해서도 비토대적인 사도들은 오늘날도 존재하는데 성경에 무지하여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장로는 모두 오중사역자로 목회자들인데, 비성경적인 장로와 당회제도가 교회 안에 굳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정론에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기근이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목회자와 신자들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셉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뿐 아니라 준비시키신 과정도 비슷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힘으로써 열방을 위해 곡식을 준비할 수 있는 총리로 준비되었습니다. 저도 이단사냥꾼들에게 놀아나는 교단들과 목사들 즉 형제들에게 매도되어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공격에 답하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했기 때문에 풍성한 영의 양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과 열방을 살린 것처럼 이단 누명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준비된 풍성한 말씀으로 교회 안의 명목상의 신자들과 교회 밖의 수많은 불신자들을 살리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한 공격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전국과 여러 나라에 지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 세계적인 강력한 치유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프리카에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것도 다 이것을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편, 요셉처럼 17살에 꿈을 꾸었다는 것, 비슷한 목적, 통과한 과정뿐 아니라 꿈의 내용도 저의 주장을 확증해줍니다. 첫 번째 꿈에서 저는 하늘에 태산만 한 보석들로 새겨진 십자가, 예수님 얼굴, 면류관 그리고 큰 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별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단 12:3). 많은 사람을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꿈에서 저는 태산만 한 흰 사람이 태산만 한 검은 사람으로 표현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목을 커다란 검으로 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은 잘못된 가르침 전체를 상징하고,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엡 6:1

7).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은 바른 진리로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싸워야 할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이고, 진리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확히 그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교회와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계를 보면 예정론에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분야마다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론과 견인의 교리, 성령론과 은사론에 이어 너무 어려워져 이해할 수가 없었던 예정론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을 초자연적으로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해석을 부어주시는 이유에 대해 **“이것은 이 시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주는 사인이다! 너희 교회가 성경적이고, 너희가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이고, 너희 교회의 사역이 성경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증표로 주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떻게 그런 증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난 2천 년 동안 드물긴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팔이나 다리가 생겨나는 기적들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해석은 성경해석상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해석이 얼마든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론에서부터 계시록 해석까지 제게 부어주시는 이유에 대해 **“첫째, 진리를 회복하고 둘째, 교회들을 개혁하고 셋째, 못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진리 회복이 우선입니다. 진리 회복이 교회의 회복을 좌우하고, 교회의 회복이 부흥과 추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완수해야 할 대업입니다.

저는 왜곡된 구원론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조차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제가 깨달은 성경적인 구원론이 널리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진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깨달은 구원론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심히 안타까웠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세계적인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는데도 이단사냥꾼들의 음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만 참석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에 쓴 선교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통하여 “두증인 전도단”을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우리 교회를 향해 활짝 열렸고, 그 결과 삼중사역을 통해 아프리카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시작하심으로 제 마음의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진한 안타까움은 수십 년 동안 성경과 씨름하고 연구하여 쓴 110권이 넘는 저의 책들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을 통해 이단이 아니라 음해를 당했다는 것이 날날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전국 기독교서점으로 제 책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안타까움을 잘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 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터뜨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때가 되면 저의 책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한 두 번의 경험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의 설교보다 저의 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들을 귀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저의 책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전하는 참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의 삼중사역을 배워 따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성도들의 변화와 부흥과 추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나눔과 적용

진리가 회복되어야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과 추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먼저 맛보고 은혜를 누린 우리가 못 영혼들에게 진리 전파를 위해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일(담임목사님의 설교에 구독과 좋아요, 책 선물)부터 힘을 합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